

【논문】

## 『노자』의 ‘자연’ 개념에 대한 소고\*

— 자발성 개념을 중심으로 —

김명석\*\*

【주제분류】 중국철학, 도가철학

【주요어】 노자, 자연(自然), 자발성, 본성, 무위

【요약문】 이 글은 『노자』의 ‘자연’ 개념을 자발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한 후, 『노자』에서 인간이 따라야 할 최고의 도덕적 표준으로 제시되는 ‘자연’ 개념은 그 개념적 한계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는 인간의 바람직한 삶을 위한 온전한 표준으로 기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노자』의 ‘자연’ 개념은 만물이나 백성과 같은 존재가 지닌 본래적 성향을 의미하기도 하며, 한편으로는 특정 존재가 지닌 본래적 성향이 외부의 영향이 아닌 자기 내부의 힘이나 원리에 의해 발현된다고 하는 의미의 자발성 개념을 함축한다. 『노자』에서는 이러한 만물의 자발적 본성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위(無為)의 행위를 가장 이상적인 행위 형태로 보며, 만물의 자발적 본성(自然)을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존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표준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하지만 만물의 일부인 인간의 경우 자발적 본성은 그 개념적 정의상 인간이 지니는 여러 가지 부정적 성향들을 자신 즉 자발적 본성의 개념으로부터 배제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인간이 따라야 할 최고의 이상으로서 제시되기에는 한계를 지닌다.

\* 부족한 논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하여 중요한 철학적 문제들을 지적해 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글에서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문제들은 시간을 두고 고민하여 후속연구에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2015년 2학기에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개설된 “동양의 가치와 철학” 수업을 들은 대학원생 박평호 군과의 토론에서 영감을 받아 쓰게 된 것임을 밝힙니다. 또한 꼭점 본 『노자』의 고문자 파일들을 통해 논문 작성에 큰 도움을 주신 산동대학교의 이승래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연세대학교 철학과

## I.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는 『노자』의 ‘자연(自然)’ 개념을 자발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한 후, 『노자』에서 인간이 따라야 할 최고의 도덕적 표준으로 제시되는 ‘자연’ 개념이 과연 그 자체만으로 인간의 바람직한 삶을 위한 온전한 표준으로 기능할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sup>1)</sup> 『노자』의 ‘자연(自然)’은 흔히 ‘스스로 그러함’, ‘본래 그러함’, ‘저절로 그러함’, ‘자연스러움’ 등으로 번역된다.<sup>2)</sup> 하지만 이 가운데 ‘자연스러움’은 그 안에 “자연”이라는 말을 그대로 담고 있어 동어반복(tautology)이 되거나, 아니면 ‘자연’의 『노자』적 의미가 아닌 영어의 ‘Nature’ 혹은 ‘natural’과 같은 서양 언어의 의미로 『노자』의 ‘자연’ 개념을 해석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번역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저절로 그러함’은 어떤 존재의 특정한 상태나 행동이 그것 외부의 다른 존재의 영향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노자』에 나타나는 ‘자연’의 다양한 용례들에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번역은 아니다. 또 ‘스스로 그러함’은 방금 언급한 ‘저절로 그러함’의 의미를 공유하면서도 ‘저절로 그러함’보다 더 많은 용례들에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아래에서 논의할 바와 같이 ‘스스로’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의 모호함 때문에 『노

- 
- 1) 여기서 ‘도덕적 표준’이라고 할 때의 도덕은 노자가 비판하는 좁은 의미의 유가나 묵가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자적 의미에서의 도와 덕을 말한다. 즉 우주의 운행원리이자 인간이 따라야 할 올바른 행위방식(道)을 내면화(德)하여 바람직한 삶을 살아가는 이상적 인간의 삶의 방식이라는 의미이다. 또 이 글에서 홉타옴표 안에 넣은 ‘자연’은 『노자』에 등장하는 “自然”이라는 낱말 혹은 그 낱말을 통해 『노자』의 저자가 의도했던 개념을 가리키며, 홉타옴표 없이 쓴 “자연”은 오늘날 우리가 의미하는 자연(nature) 또는 『노자』의 천(天)이나 천지(天地) 등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 2) 필자가 이 글을 쓰면서 주로 참고한 『노자』 번역은 다음과 같다: 이강수 역, 『노자』(서울: 도서출판 길, 2007); 김용옥, 『노자와 21세기』(전3권), 제2판(서울: 통나무, 2013); 이석명, 『백서 노자』, 제2판(고양: 청계출판사, 2006); 최진석,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서울: 소나무, 2001); 김형효, 『사유하는 도덕경』(서울: 소나무, 2004); 최재목, 『노자』(서울: 을유문화사, 2006); 池田知久, 『老子』(東京: 東方書店, 2006); Philip J. Ivanhoe, *The Daodejing of Laozi* (New York: Seven Bridges Press, 2002); D. C. Lau, *Tao Te Ching* (London: Penguin Books, 1963).

자』의 ‘자연’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노자』의 ‘자연’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번역들보다 더 엄밀한 철학적 술어가 필요하며, 필자는 자발성(spontaneity)이라는 개념이 그러한 술어의 역할을 잘 해줄 것이라 기대한다. 왜냐하면 자발성의 개념은 스스로 그러함, 본래 그러함, 저절로 그러함 등 ‘자연’ 개념의 다양한 철학적 함축들을 모두 포괄할 수 있으며, 아울러 필자가 위에서 제기한 『노자』 ‘자연’ 개념과 관련한 문제, 즉 ‘자연’의 개념은 인간의 바람직한 삶을 위한 충분한 지침을 제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통찰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자』의 ‘자연’ 개념을 ‘자발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풀이한 연구는 종종 발견되지만, 정작 자발성 개념의 의미를 엄밀히 규정하며 『노자』의 ‘자연’ 개념을 천착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sup>3)</sup> 아래에서는 우선 이케다 토모히

- 3) 김형효는 『사유하는 도덕경』에서 “자연”이라는 용어를 주로 성인 혹은 인간에 대비되는 만물, 혹은 만물의 총체로서의 자연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예컨대 61-63쪽, 175-177쪽, 425-431쪽), 이러한 만물 혹은 자연의 속성으로서 사실성, 자연성(62쪽) 등과 함께 자발성을 언급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동물적 본능도 가지지만 ‘본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도 지니는데, 인간의 본능과 본성은 무위적, 자발적이라는 공통점을 지닌다(178쪽). 즉 인간의 자발성은 무의식적 욕망을 통해 표출되는데, 인간의 욕망에는 이기적 배타성을 특징으로 하는 소유론적 욕심(즉 본능)과 단순히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갈망하는 존재론적 욕망(즉 본성)이 포함된다는 것이다(423-431쪽).

한편 최진석은 그의 논문집인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고양: 소나무, 2014)에서 성인의 지혜(聖智)나 인의(仁義)의 덕목을 버리고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소박함을 지켜내야 한다는 『노자』 제19장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이러한 소박함을 발휘하는 것이 인간의 자발성이며 이러한 자발성에 근거해야 한다는 행위원칙이 바로 자연무위라고 말한다. 즉 노자가 자연무위라는 관념을 도입한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최대의 자발성을 가지고 각자의 특수성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35-36쪽). 그런데 그는 이러한 노자의 사상을 푸코의 자율적 주체의 개념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 즉 외부의 도덕규범을 내면화하여 자기를 규율하는 종속적 주체가 아니라 자기 내면의 원리에만 의거하여 스스로 윤리의 입법자가 되는 자율적·능동적 주체에 대한 생각을 노자의 자정(自定, 제37장)이나 자정(自正, 제57장) 등의 개념에서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59-61쪽). 비슷한 맥락에서 정세근도 노자의 ‘자연’ 개념을 자발성 개념으로 풀이하면서 『노자』의 자정(自定) 개념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노자의 철학은 ‘나’(我)라는 주체성을 강조하며, 모든 개체들이 다른 존재와 관계 맺지 않고도 스스로 완전한 주체로서 홀로 이 세계 속에서 자기를 실현시켜 나가야 함을 주장했다고 한다. 정세근, 『제도와 본성』(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1), 188-195쪽 참조.

사(池田知久)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가 『노자』의 ‘자연’ 개념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영위해 가려는 만물이나 백성의 자발성(voluntariness)을 의미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케다가 생각하는 『노자』의 ‘자연’ 개념은 만물이나 백성들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영위해 가려는 의식적·주체적 노력으로서, 무위(無為)보다는 작위(作為)에 가까운 개념이다.<sup>4)</sup>

또 박원재는 『노자』의 ‘자연’이 ‘스스로(혹은 저절로) 그러하다’는 뜻의 술어로서, 만물의 운동변화가 지니고 있는 자발적이고 자족적인 성격을 나타내기 위한 용어라는 점을 지적한다. 즉 ‘자연’이라는 용어는 세계가 보여주는 항상적 질서가 세계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힘의 결과가 아니라 ‘만물’로 표현되는 세계 내의 개별적 사태들이 합장하고 있는 내재적인 경향성의 발로라는 생각을 대변한다는 것이다. 박원재, 「“성인”과 “백성”—노자의 수양론의 두 측면」, 『중국철학』 제12권(중국철학회, 2004), 12쪽. 이와 비슷하게 원정근은 『노자지귀(老子指歸)』의 저자인 엄준(嚴遵)을 인용하면서 ‘자연’은 우주만물을 총칭하는 어떤 고정적 실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물이 그 어떤 궁극적 실체에도 의존함이 없이 저절로 그러하게 생겨나고 변화할 수 있는 자발적 과정과 상태를 형용하는 술어라고 말한다. 원정근, 『도가철학의 사유방식』(서울: 법인문화사, 1997), 141쪽.

이렇게 ‘자발성’이라는 용어는 노자의 ‘자연’ 개념에 대한 기존의 설명에서 종종 발견되며, 그것은 대체로 만물이 외부의 힘보다는 자기 내부의 원리나 경향성에 따라 운동·변화하는 양상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형효의 경우 『노자』에 보이는 ‘자연’이라는 술어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nature)의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으며, 따라서 만물의 총체로서의 자연(nature)이 지니는 속성으로서의 자발성에 해당하는 『노자』의 개념이 ‘자연’인지 아닌지는 『노자』에 대한 그의 설명에서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또 최진석의 경우 자신의 본래적 소박함을 잘 발휘하는 자발적 인간이 곧 자율적·능동적 주체라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자발성과 자율성은 충위를 달리하는 개념으로서 자신의 소박함을 따르는 무위적 행위방식을 인간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점에서 능동적 주체가 되는 것인지 분명하지가 않다. 아래에서는 『노자』 원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자발성 개념과 관련된 이러한 모호성을 최대한 해소하고 필자 나름의 보다 분명한 입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4) 池田知久, 『老莊思想』(東京: 放送大學教育振興會, 2000). 『노자』의 ‘자연’ 개념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부분적으로 유소감(劉笑敢)이 영어로 발표한 논문에서도 확인된다. Liu Xiaogan, “Naturalness (Tzu-jan), The Core Value in Taoism: Its Ancient Meaning and Its Significance Today,” in *Lao-tzu and the Tao-te-ching*, ed. Livia Kohn and Michael LaFargu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8) 참조. 국내 연구 가운데 『노자』의 ‘자연’에 대한 이케다가의 견해와 매우 유사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으로는 이승률의 연구가 있다. 이승률, 「郭店楚簡『老子』의 ‘自然’思想과 그展開」, 『동양철학연구』 제53집(동양철학연구회, 2008) 참조. 또 이 글의 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진 않지만 자연 그대로의 자발성(untutored spontaneity)과 계발된 자발성(cultivated spontaneity)이라는 구분을 통해 도가와 유

필자는 이러한 이케다의 견해가 『노자』의 ‘자연’ 개념을 자발성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해해 보려는 본격적 시도라는 점에서 높이 살만하며, 일정 정도 학계의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견해는 『노자』의 ‘자연’을 일종의 작위로 본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에 대한 심각한 오해를 초래하며, 그런 점에서 엄밀한 분석과 비판 또한 요구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아래에서 필자는 이케다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후, 『노자』의 ‘자연’ 개념은 만물이나 백성과 같은 존재가 지닌 본래적 성향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특정 존재가 지닌 본래적 성향이 자기 내부의 힘이나 원리에 의해 발현된다는 의미의 자발성(spontaneity) 개념이 『노자』의 ‘자연’ 개념에 함축되어 있다는 점을 주장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킴에 있어 필자는 ‘스스로 그러함’과 ‘본래 그러함’이라는 ‘자연’ 개념의 두 측면에 주목하여 이를 각각 자발성과 본래성이라는 개념으로 구체화한 오상무의 연구로부터 많은 도움과 시사를 받았다.<sup>5)</sup> 하지만 이 글이 그의 연구에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것은 아니며, 어떤 지점들에서는 미세하지만 중요한 의견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노자』의 ‘자연’ 개념을 자발성(spontaneity) 개념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자발적인 것이 모두 긍정적인 것 또는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 있다는 필자 자신의 개인적 생각 때문이다. 『노자』 제 64장에서 성인은 만물의 ‘자연’을 도울 뿐 감히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성인이 만물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끄는 대신 만물이 지닌 자발적 본성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만으로도 도가적 이상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여기에는 만물의 자발성 혹은 자발적 본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들어 있다. 하지만 인간은 만물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욕망의 대상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성향, 그리고 세계를 선악, 미추 등의 대립항으로 나누고 자신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

가의 자발성(spontaneity) 개념을 비교 연구한 흥미로운 논문으로는 Philip J. Ivanhoe, “The Values of Spontaneity,” in *Taking Confucian Ethics Seriously*, ed. Kam-por Yu, Julia Tao, and Philip J. Ivanho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10)이 있다.

5) 오상무, 「『老子』의 自然 개념 論考」, 『철학연구』 제82집(철학연구회, 2008).

것만을 추구하는 분별적 성향을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노자』에서 이러한 인간의 부정적 성향들을 자발적 본성의 개념으로부터 배제할 수 없다면, 노자의 ‘자연’ 개념은 인간이 따라야 할 최고의 도덕적 이상 또는 표준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를 지니지 않는가 하는 물음이 제기 될 수 있다. 이것이 이 글의 마지막 부분에서 『노자』의 ‘자연’ 개념에 대해 필자가 조심스럽게 제기해 보고자 하는 비판적 물음이다.

## II. ‘자연’ 개념의 어원적 의미와 만물의 자발성

‘자연’ 개념은 『노자』 제17장, 23장, 25장, 51장, 64장에서 총 5회 보인다. 또 ‘자연(自然)’이라는 말이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제32장의 ‘자빈(自賓)’이나 ‘자균(自均)’, 제37장의 ‘자화(自化)’나 ‘자정(自定)’과 같은 용어를 통해 ‘자연’ 개념과 유사한 생각이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우선 『노자』 제17장에 나타나는 ‘자연’ 개념의 용례를 분석하여 ‘자연’ 개념의 기본적인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자:

최상의 군주는 아랫사람들이 그가 있는 줄만 알고, 그 다음은 그를 친애하며 칭찬하고, 그 다음은 그를 두려워하며, 그 다음은 그를 모욕한다. [아랫사람들에 대한 군주의] 믿음이 부족하면 [군주에 대한] 불신이 생겨난다. 신중하구나, 그 말을 아낌이여!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되어도 백성들은 모두 “내가 스스로 그렇게 하였다”고 말하네.<sup>6)</sup>

『노자』에 나타나는 ‘자연’ 개념이 특정한 대상 특히 대상적 자연(Nature)을 가리키는 명사가 아니라 만물이나 백성, 혹은 학자에 따라서는

6) 『노자』 제17장: “太上, 下知有之; 其次, 親而譽之; 其次, 畏之; 其次, 侮之. 信不足焉, 有不信焉. 悠(猶)兮, 其貴言! 功成事遂, 百姓皆謂我自然.” 『노자』 원문은 루우열(樓宇烈), 『왕필집교석(王弼集校釋)』(臺北: 華正書局, 1992)에서 취했으나, 루우열의 표점 방식을 완전히 따르지는 않았다. 또 백서본(帛書本)이나 괏점본(郭店本)에 따라 글자를 달리 읽은 곳은 괏호 속에 달리 읽은 글자를 넣어 표시하였다. 이 장에서 ‘悠’자는 백서본과 괏점본에 따라 ‘猶’로 보아 ‘신중하다’로 번역하였다.

도(道)의 존재방식이나 근본속성을 서술하기 위한 술어라는 점은 그동안 많이 지적되어 왔다.<sup>7)</sup> 이 점에 근거하여—그리고 위의 인용문에서 “자연(自然)”의 주어가 ‘나’ 혹은 ‘우리(我)’라는 점에서—위 인용문에서의 “자연(自然)”이 나 혹은 우리로 지칭되는 백성의 존재방식이나 행동양식의 특성을 기술하는 말로 오해되기도 한다.<sup>8)</sup>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원문의 “아자연(我自然)”에서 ‘자(自)’는 ‘스스로’를 뜻하는 부사이고, ‘아(我)’가 ‘연(然)’의 주어인 것은 맞지만 의미상 ‘연(然)’이 받는 것은 나 혹은 우리로 지칭되는 백성의 상태가 아니라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된(功成事遂) 상태이다. 따라서 “아자연(我自然)”은 ‘내가(혹은 우리가) 스스로 그러하다’가 아니라 이강수나 이승률의 번역처럼 ‘내가(혹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다’로 번역되어야 한다.<sup>9)</sup>

‘자연’ 개념의 이러한 용례 즉 “스스로 그렇게 하다”는 아래에서 설명할 “스스로 그러함”이나 “본래 그러함”과 같은 ‘자연’ 개념의 보다 철학적인 의미로 발전하기 이전의 일상적 표현으로 보인다. 어쨌든 이러한 ‘자연(自然)’의 용례에서 주목할 점은 ‘자(自)’가 일종의 재귀대명사적 부사(reflexive pronominal adverb)로서 그 뒤에 따라나오는 술어가 받는 주어의 상태나 행동이 주어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sup>10)</sup>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자(自)’는 원래 코(鼻)를 의

7) 陳鼓應, 『老莊新論』(香港: 中華書局, 1991), 29쪽; 이종성, 「노자의 자연관」, 『동서철학연구』 제24호(한국동서철학회, 2002), 226-227쪽. 이 점에 대한 최근의 전문적 연구로는 이승률, 「研究史를 통해서 본 中國 古代의 ‘自然’ 思想과 問題點 考察」, 『동양철학연구』 제49집(동양철학연구회, 2007) 참조.

8) 예컨대 김용옥의 번역이 이러한 오해에 근거하고 있다. 김용옥, 『노자와 21세기[2]』, 213쪽 및 226-227쪽 참조.

9) 이강수 역, 『노자』, 90쪽; 이승률, 「郭店楚簡『老子』의 ‘自然’ 思想과 그 展開」, 216쪽 참조. 여기서 ‘연(然)’을 ‘그렇게 하다’ 혹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다’는 의미의 타동사로 간주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다]’로 ‘그러함’을 뜻하는 ‘연(然)’의 원래 의미에 사역의 의미를 첨가해서 번역해 주어야 할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군주가 말을 아킴으로써 공이 이루어지고 일이 완수된 것을 두고 백성들이 ‘우리가 스스로 그러하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뜻이 통하지 않으므로 ‘아자연(我自然)’을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다’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10) van Houten, Richard Lee, *The Concept of Nature (tzu jan) in Kuo Hsiang and its Antecedents*, Ph. D. Dis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1981, p. 6.

미하는 상형자라고 하며, 단옥재(段玉裁)에 의하면 사람의 코를 의미하는 ‘자(自)’의 이러한 용법으로부터 ‘~로부터(從)’, ‘자기(己)’, 그리고 ‘자연’의 세 가지 의미가 파생되어 나왔다고 한다.<sup>11)</sup> ‘자(自)’의 이러한 용법과 ‘자연’ 개념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 것으로 보이나,<sup>12)</sup> 이케다 토모히사(池田知久)에 의하면 ‘자연(自然)’의 ‘자(自)’는 자기 자신(己)을 뜻하며, 고대 한어에서 ‘자연(自然)’은 원래 ‘태연(泰然)’이나 ‘막연(漠然)’과 같은 부사로서 ‘みずから’ 즉 ‘스스로’ 또는 ‘자발적으로’ 등을 의미했으며 이로부터 만물 또는 백성이 자신의 내부에 가지고 있는 힘에 의해 자율적·자발적으로 존재하거나 변화하거나 하는, 만물과 백성의 자발성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sup>13)</sup>

오상무도 ‘자연’ 개념에 대해 부분적으로 이와 비슷한 해석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갑골문에서 ‘자(自)’는 사람의 코를 형상화한 글자이고, 사람들이 대화할 때 자신의 코를 가리키면서 자신을 지칭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자(自)’가 자기(自己)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으며, ‘자연(自然)’은 자기와 반대되는 타자에 의해서가 아닌 ‘스스로 그러함’을 의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더하여 오상무는 또 ‘자(自)’에는 ‘본래’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러한 해석을 취할 경우 ‘자연’은 ‘스스로 그러함’이 아닌 ‘본래 그러함’이라는 뜻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오상무의 설명에 따르면 ‘스스로’와 ‘본래’ 사이에는 중요한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즉 타자가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어 무엇인가를 했을 때 우리는 ‘스스로’라는 표현을 쓰지만 ‘본래’라는 말은 ‘애초에’ 또는 ‘처음부터’라는 뜻이며,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어떤 상태에 이른다 해도 그것이 애초의 상태에서 변화된 다른 상태일 수도 있고 또 자신의 본래적 성향을 거슬러서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은 개념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상무는 전자 즉 ‘스스로 그러함’을 자발성이라는 말로, 후자 즉 ‘본래 그러함’은 본래성이라는 말로 개념화하기도 한다.<sup>14)</sup>

11) 단옥재(段玉裁), 『설문해자주(說文解字注)』(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8), 136쪽.

12) ‘자연’ 개념에 대한 일본 학자들의 다양한 어원적 설명에 대해서는 이승률, 「研究史를 통해서 본 中國 古代의 ‘自然’ 思想과 問題點 考察」을 참조.

13) 池田知久, 『老莊思想』, 298-302쪽 참조.



### Ⅲ. 이케다 토모히사(池田知久)의 ‘자연’ 개념 해석에 대한 비판

앞서 논의한 『노자』 제17장에서처럼 ‘자연(自然)’의 ‘자(自)’가 재귀대명사적 부사로서 주어의 상태나 행동이 주어 자신의 주체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케다 토모히사는 만물 또는 백성의 ‘자연’을 자발성으로 규정한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자발성과 성인(聖人)의 무위(無爲)는 명확히 구분되며, 전자는 후자를 원인으로 하여 성립하는 결과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노자』에서 ‘자연’ 개념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영위해 가려는 만물이나 백성의 자발성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발성을 가능케 하는 조건 혹은 원인은 통치자로서의 성인이 가지는 정치적 태도인 무위라는 것이다. 예컨대 『노자』 제17장과 관련하여 이케다는 주체인 군주(太上)가 객체인 백성(下)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무위의 정책을 채택하면, 그것을 원인으로 하여 백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하여 공을 이루고 일을 완수해 내는 결과가 생겨난다고 한다.<sup>15)</sup> 이케다에 의하면 이러한 ‘주체→객체’, ‘원인→결과’의 패턴은 『노자』 제37장과 57장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우선 『노자』 제37장을 보자:

도는 늘 함이 없으나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임금만 일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은 장차 스스로 변화될 것이다. 변화되었으나 [다시] 작위하고 자 한다면 나는 그것을 이름 없는 통나무로 누를 것이다. 이름 없는 통나무는 또한 욕심이 없을 것이니, [임금도] 욕심 없이 고요하면 천하가 장차 스스로 안정되리라.<sup>16)</sup>

마왕퇴(馬王堆) 『노자』 갑본(甲本)에는 ‘자화(自化)’가 ‘자위(自慰)’로 되어 있고, 이케다는 이를 ‘자위(自爲)’로 보아 만민(萬民)이 스스로 자율적

14) 오상무, “『老子』의 自然 개념 論考”, 4-7쪽 참조.

15) 池田知久, 『老莊思想』, 304-305쪽.

16) 『노자』 제37장: “道常無爲而無不爲. 侯王若能守之, 萬物將自化. 化而欲作, 吾將鎮之以無名之樸. 無名之樸, 夫亦將無欲. 不欲以靜, 天下將自定.”

으로 활동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sup>17)</sup> 즉 임금이 무위(無爲)의 성격을 지닌 도(道)를 통치의 원칙으로 삼아 백성들의 생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자신의 생활을 계획하고 영위해 나가게 된다는 것이다.<sup>18)</sup> 이케다에 따르면 『노자』 제57장도 같은 방식으로 해석된다:

세상에 금기가 많으면 백성들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들에게 편리한 도구가 많을수록 국가는 더욱 혼란해지며, 사람들에게 교묘한 재주가 많을수록 기이한 물건들이 더욱 많아지고, 법령이 뚜렷해질수록 도적이 많이 생긴다. 그러므로 성인은 말한다: “내가 무위하면 백성들은 스스로 교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면 백성들은 스스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일삼는 바가 없으면 백성들은 스스로 부유해지고, 내가 욕심이 없으면 백성들은 스스로 소박해진다.”<sup>19)</sup>

이케다는 이 구절도 앞 구절과 마찬가지로 성인의 무위(好靜, 無事, 無欲)가 원인이 되어 백성의 ‘자연’, 즉 백성들이 스스로의 자율적·자발적인 노력을 통해 올바르게 부유해지는(自正, 自富) 결과가 도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도 무위와 ‘자연’은 각각 성인과 백성이 배타적으로 지니는 속성(즉 백성은 무위하지 않으며 ‘자연’은 성인의 특성이 아니라 의미)이며, 백성의 ‘자연’은 그들의 자율성, 자발성을 의미한다.<sup>20)</sup>

17) ‘자화(自化)’는 관점본에서도 ‘자위(自慰)’로 되어 있는데, 최재목은 이를 이케다와 마찬가지로 ‘자위(自爲)’로 보고 ‘만민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풀이한다. 최재목, 『노자』, 121-122쪽 참조. 또 아래에서 논의할 『노자』 제 57장의 ‘자화(自化)’에 상응하는 관점본의 ‘자위(自爲)’에 대한 최재목의 해석도 참조하라(186-190쪽).

18) 池田知久, 『老莊思想』, 306쪽; 池田知久, 『老子』, 324쪽 참조.

19) 『노자』 제57장: “天下多忌諱而民彌貧; 民多利器, 國家滋昏; 人多伎巧, 奇物滋起; 法令滋彰, 盜賊多有. 故聖人云: ‘我無爲而民自化, 我好靜而民自正, 我無事而民自富, 我無欲而民自樸.’”

20) 池田知久, 『老莊思想』, 306-307쪽 참조. 유소감(劉笑敢)도 『노자』의 ‘자연’ 개념을 설명하면서 부분적으로 이러한 견해를 피력한다. 즉 어떤 존재가 ‘자연’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직접적이고 강압적인 개입이나 영향이 없어야 하고, 이는 그 존재가 자신의 삶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자발적인 결정(voluntary decision)을 내리고 그에 따라 행위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는 것이다. Liu Xiaogan, “Naturalness (Tzu-jan), The Core Value in Taoism: Its Ancient Meaning

하지만 이러한 이케다의 주장은 『노자』 원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자연’과 무위 개념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심각한 개념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케다는 마왕퇴 갑본의 ‘자위(自慰)’를 ‘자위(自爲)’로 보아 이를 (백성들의) 자발적·자율적 활동으로 풀고 있으나 마왕퇴 을본(乙本)에는 왕필본과 마찬가지로 ‘자화(自化)’로 되어 있어 반드시 이케다의 해석을 따를 필요가 없으며, 해당 부분을 ‘자화(自化)’로 읽을 경우 백성들이 무위의 도(道)를 체득한 성인의 영향을 받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절로 교화된다고 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바로 뒤에 나오는 ‘화이욕작(化而欲作)’에서 ‘작(作)’은 진압(鎭)이라고 하는 성인의 부정적 대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무위와 반대되는 작위(作爲) 혹은 인위적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화(化)’를 이케다처럼 ‘위(爲)’로 볼 경우 ‘위(爲)’와 ‘작(作)’의 의미가 겹치기 때문에 해당 구절은 백성의 자발적·자율적 행위가 성인의 무위 정책의 영향으로 생겨나는 바람직한 결과 이면서 동시에 그러한 행위의 작위성 때문에 성인의 진압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적 진술이 되어 버린다. 게다가 해당 구절과 매우 유사한 구절이 『노자』 제32장에서 발견된다:

도는 항구하여 이름이 없다. 통나무는 비록 작지만 세상에 아무도 그것을 신하로 삼을 수 없다. 제후와 군왕이 만약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만물이 스스로 찾아와 복종할 것이다.<sup>21)</sup>

주지하다시피 이 구절의 의미는 통나무와 같이 끝질을 하여 구체적인 기물들로 만들어지기 이전의 소박하고 이름 없는 도(道)의 상태를 체득하여 정사(政事)를 행하는 군주에게는 먼 곳의 백성들도 진심으로 감복하여 스스로 찾아와 그의 백성이 되고자 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 구절과 『노자』 제37장의 유사성으로 볼 때—심지어 마왕퇴본 37장의 첫부분은 이 구절과 마찬가지로 ‘도항무명(道恒無名)’으로 되어 있다—앞서 논의한 ‘자위(自慰)’는 ‘자위(自爲)’가 아니라 ‘자화(自化)’로, 즉 백성들이 군주의 무위 통

and Its Significance Today,” pp. 221-226 참조.

21) 『노자』 제32장: “道常無名。樸雖小，天下莫能臣也。侯王若能守之，萬物將自賓。”

치의 영향을 받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감화 혹은 교화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 『노자』 제57장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케다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백성들이 스스로 바르게 되고(自正) 스스로 부유해진다는(自富) 『노자』의 말을 백성들이 스스로의 자율적·자발적 노력을 통해 바르게 되고 부유해지는 것이라고 해석한 후 『노자』의 ‘자연’ 개념은 백성들의 이러한 활동이나 노력을 대표하는 추상적 개념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57장에는 ‘자정(自正)’과 ‘자부(自富)’ 뿐만 아니라 ‘자화(自化)’와 ‘자박(自樸)’이라는 말도 나온다. ‘자화(自化)’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백성들이 성인의 무위 통치에 감화되거나 교화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며, 감화나 교화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감화 혹은 교화의 대상이 주체적·의식적 노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성취해 내는 것이라기보다는, 감화 혹은 교화의 주체인 성인(聖人) 혹은 도를 체득한 군주의 영향력에 노출되어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혹은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변화된다고 하는 측면이 강하다.<sup>22)</sup> 또 ‘자박(自樸)’의 ‘박(樸)’도 주지하다시피 여러 가지 기물들로 나누어지기 이전의 가공하지 않은 통나무를 뜻하며 인간의 언어와 분별적 지혜로 실재를 나누어 보지 않는 무위의 태도를 가리키는 말로서, 자율적·자발적 노력을 통해 자신의 삶을 적극적으로 영위해 가는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볼 때 ‘자정(自正)’과 ‘자부(自富)’도 반드시 이케다의 방식으로 해석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해석의 일관성을 위해서는 성왕(聖王)의 영향력에 감화되어 소박해진 백성들의 삶의 형태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긍정적 변화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22) 『노자』 제57장의 ‘자화(自化)’는 광점본에 ‘자위(自巽)’로 되어 있는데, 료명춘(廖名春)에 의하면 ‘위(巽)’나 ‘위(巽)’는 모두 본래 같은 글자로서 ‘위(為)’가 좀 더 복잡하게 변화한 것(繁化)이며 ‘위(為)’와 ‘화(化)’는 발음이 같아 고대문헌에서 종종 통용되었다고 한다. 료명춘, 『광점초간노자교석(郭店楚簡老子校釋)』(北京: 清華大學出版社, 2003), 311~312쪽 참조. 이에 따르면 광점본의 ‘자위(自巽)’는 문맥에 따라 ‘자위(自為)’로 해석될 수도 있고 ‘자화(自化)’로 해석될 수도 있다. 하지만 필자가 이케다의 견해를 비판하며 제시한 다른 논거들이 설득력이 있다면, 여기서의 ‘자위(自巽)’도 ‘자위(自為)’보다는 마왕퇴 갑본과 을본, 그리고 왕필본 등을 따라 ‘자화(自化)’로 읽는 것이 관련 구절들에 대한 보다 일관된 해석을 가능케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자연’과 무위 개념의 관계와 관련하여 이케다의 주장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케다에게 있어 『노자』의 ‘자연’은 만물과 백성의 자발성을 의미하며, 이는 통치자로서의 성인이 취하는 무위의 정책을 조건 혹은 원인으로 하여 생겨난다. 또 이케다가 말하는 자발성(自然)은 그 정의상 무위와 정반대되는 개념이며, 이승률이 지적한 것처럼 무위보다는 오히려 인위나 작위와 친화적인 개념이다.<sup>23)</sup> 따라서 두 개념 사이의 양립불가능성 때문에 무위는 도(道) 혹은 도를 체득한 성인만의 특성이며, ‘자연’은 성인의 지배를 받는 만물 또는 백성만이 지니는 속성이라고 간주된다. 하지만 과연 ‘자연’이 만물이나 백성만의 속성일까? 『노자』 제64장에서는 “성인은 만물의 ‘자연(自然)’을 도울 뿐 감히 [무언가를] 일부러 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sup>24)</sup> 여기에서 ‘자연(自然)’이 만물의 속성임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노자』 제2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도(道)가 위대하며, 하늘이 위대하며, 땅이 위대하며, 왕도 또한 위대하다.  
[이] 세계에는 네 가지 위대한 것이 있으니, 왕도 그 중의 하나를 차지한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道)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sup>25)</sup>

여기에서 도(道)가 본받는다고 하는 ‘자연’이 무엇의 속성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도가 ‘자연’이라는 속성 덕분에 위대해지며 사람(여기에서는 아마도 통치자)도 땅, 하늘, 도를 본받는 것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자연’이라는 속성을 획득함으로써 위대해진다고 하는 점은 분명하다. 즉 이케다의 주장과 달리 ‘자연’은 만물과 백성뿐만 아니라 통치자, 그리고 이들 모두의 근원인 도(道)까지도 이상적으로 공유하는 속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위는 이케다의 주장처럼 백성이 아닌 도(道)나 성인만의 특성일까? 『노자』 제3장을 보자:

23) 이승률, 「郭店楚簡『老子』의 ‘自然’思想과 그展開」, 215쪽.

24) 『노자』 제64장: “聖人…輔萬物之自然而不敢爲.”

25) 『노자』 제25장: “道大, 天大, 地大, 王亦大. 域中有四大, 而王居其一焉. 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현명한 이를 높이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다투지 않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도적이 되지 않게 할 것이며, 욕구할 만한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그들의 마음을 비우고 배를 채우며, 그들의 뜻을 약화시키고 빼는 강하게 하여서 항상 백성들로 하여금 단순하고 욕심 없게 하며 [이른바] 지혜로운 자들로 하여금 감히 허튼 짓을 하지 못하게 한다.<sup>26)</sup>

주지하다시피 유가와 묵가의 상현론은 현명하고 능력있는 이에게 관작과 봉록을 주어 그들의 명예를 높이고 부를 늘려줌으로써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도덕적·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백성들은 그들을 모범으로 삼아 따르게 함으로써 사회의 도덕적 교화와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노자는 이러한 정책이 백성들로 하여금 명예와 부, 권력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의식적으로 노력하도록 만들고,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겉으로만 도덕적 외양을 꾸미게 하며, 또 그 와중에 서로간의 경쟁과 갈등을 부추기기 때문에 백성들을 무지무욕(無知無欲) 즉 단순하고 욕심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면 상현(尙賢)과 같은 유위의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성인의 행위만이 무위가 아니라 그 결과로 백성들이 다르지는 상태, 즉 무지무욕의 상태 또한 무위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여 뜻을 세우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하는 간교한 지혜(知), 그리고 배를 채우고 빼를 튼튼히 하는 것을 넘어서 현란한 무늬와 아름다운 소리 등을 추구하는 증폭된 욕망(欲)은 노자가 볼 때 인위와 문명, 경쟁과 분란의 씨앗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케다의 주장과 달리 무위는 도(道)나 성인만의 배타적 특성이 아니라 백성들도 추구해야 할 속성이 된다.<sup>27)</sup>

26) 『노자』 제3장: “不尙賢，使民不爭；不貴難得之貨，使民不爲盜；不見可欲，使民心不亂。是以聖人之治，虛其心，實其腹，弱其志，強其骨，常使民無知無欲，使夫智者不敢爲也。”

27) 이 장에서 바람직한 상태로 제시하는 백성들의 무지무욕의 상태는 무위가 아니라 박(樸), 즉 단순하고 소박한 상태를 가리키므로 무위는 백성들의 속성이 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적이 있다. 하지만 필자는 무지무욕 즉 간교한 지혜와 욕심이 없는 상태는 소박함(樸)과 마찬가지로 무위, 즉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않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에 대한 묘사이므로 무지무욕은 곧 무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필자가 볼 때 이러한 비판은 성립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다면 노자에게 있어 무위와 ‘자연’의 개념은 이케다의 주장처럼 서로 양립불가능한 모순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개념적으로 매우 밀접하며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무위와 ‘자연’ 모두 만물, 백성, 성인, 그리고 도(道)가 공통적으로 지녀야 할 이상적 태도 혹은 속성이며, 성인의 무위를 통해 백성들이 무지무욕의 상태에 도달한다는 것은 백성들의 ‘자연’이 가장 잘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한 장애물의 제거, 즉 일종의 심리적 정지(整地)작업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이케다의 말대로 무위와 ‘자연’의 관계는 전자를 조건으로 하여 후자가 결과로서 발현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무위와 ‘자연’은 서로 다른 행위 주체들이 배타적으로 지니는 양립불가능한 속성이 아니라 도(道)를 포함한 이 세계의 모든 존재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혹은 지녀야 할 속성이며, 만물 특히 백성의 경우에 무위는 자신의 ‘자연’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바람직한 태도 혹은 삶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무위와 ‘자연’은 이강수의 표현대로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다.<sup>28)</sup> 따라서 무위가 어떤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인위적 태도의 배제를 의미하는 이상, ‘자연’을 이케다와 같이 만물 또는 백성의 자발성(voluntariness)으로 해석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sup>29)</sup>

28) 이강수, 『道家思想의 研究』, 제4판(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출판부, 1995), 202쪽.

29) 이 글에 대한 익명의 심사위원 한 분에 따르면 이성에 기초한 행위 또는 자기 자신이 원인이 되어 내린 판단의 경우 자발성(voluntariness)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칸트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의지적 자유로, 밀(J. S. Mill)에게 있어서는 사회적 자유로 전환되는데 이러한 의미의 자발성(voluntariness) 개념을 『노자』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노자의 ‘자연’ 개념을 자연계의 생물들이 그들의 속성에 따라 짝을 짝우고 자라는 것과 같은 의미의 자발성(spontaneity)으로만 해석할 경우 『노자』에서 제시되는 이상사회는 원시사회이거나 문명화 이전의 동물적 수준의 사회가 되어버리고 마는데, 『노자』가 그리는 이상사회의 올바른 모습은 억압기제로 작동하는 기존의 도덕 규범을 타파하고 백성들이 자신들의 자발성(voluntariness)에 기초하여 새로이 규범과 도덕을 창조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성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필자는 위에서 노자의 자화(自化), 자정(自正), 자부(自富), 자박(自樸) 등의 개념이 백성들의 자율적, 자발적(voluntary) 노력에 의한 능동적 성취의 결과가 아니라 성왕의 영향력에 백성들이 감화되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 IV. 본래 그러함, 스스로 그러함, 만물의 본성

앞에서 필자는 『노자』의 ‘자연’ 개념을 ‘스스로 그러함’과 ‘본래 그러함’으로 나누어 보는 오상무의 해석을 간략히 소개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본래’란 ‘애초에’라는 뜻이며, ‘본래 그러함’이란 무언가가 본래부터 가지는 성격 혹은 속성이 될 것이다. 또 그의 견해에 의하면 ‘스스로 그러함’과 ‘본래 그러함’은 개념적으로 구분되며 때에 따라서는 상충할 가능성도 있지만, 『노자』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한다. 즉 무언가가 본래 지니고 있는 내적 성향이 외부의 힘이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발현될 때 ‘본래’에서 ‘스스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노자』의 ‘자연’ 개념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앞서 인용한 『노자』 제64장에서는 “성인이 만물의 ‘자연’을 돕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때 만물의 ‘자연’을 돕는다는 말은 만물 각자가 지닌 본래적 성향이 타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뜻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벼를 밭이 아닌 논에 심고 물을 충분히 대주는 것과 같은 행위는 벼의 타고난 본성(본래 그러함)이 스스로의 힘으로 잘 발현될 수 있도록(스스로 그러함) 도와주는 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곧 노자가 말하는 무위(無爲)라는 것이다.<sup>30)</sup>

앞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오상무는 『노자』 ‘자연’ 개념의 이러한 두 가지

---

긍정적 변화의 일종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자세히 논증하였는데, 필자의 논변에 대한 설득력 있는 비판 없이 『노자』의 ‘자연’ 개념을 칸트적 의미의 자발성(voluntariness)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둘째, 자기 내부의 자발적(spontaneous) 원리 또는 본래적 성향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노자의 권고가 반드시 문명에 대한 전면적 거부나 동물적 수준의 생활로 돌아가자는 주장을 함축하지는 않는다. 셋째, 칸트적 의미의 자율(自律)은 이성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행위의 규칙을 세우고 이로써 자기 내부의 여러 자연적 경향성들을 규제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는데, 이는 인간이 자연적으로 타고난 본래적 성향을 따라야 한다는 노자의 무위자연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필자가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인위의 폐해에 물든 인간이 자신의 본래적 소박함을 회복하고자 기울이는 의식적 노력은 자율적인 측면이 있다고도 할 수 있겠으나, 노자의 ‘자연’ 개념 자체에 칸트적 의미의 자율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고 보는 관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0) 오상무, 「『老子』의 自然 개념 論考」, 5-7쪽 참조.



측면을 각각 본래성과 자발성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한다. 또 만물의 본래성에 대해 설명하면서 오상무는 본성(本性)의 개념을 도입하여 벼나 백성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한다.<sup>31)</sup> 필자가 앞절에서 주장한 것처럼 『노자』의 ‘자연’ 개념을 만물이나 백성의 자발성(voluntariness)으로 해석하면서 이를 만물 혹은 백성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가려는 주체적·자율적 노력으로 보는 이케다의 관점은 적절한 해석이라고 보기 힘들다. 벼나 보리가 자신의 주체적·자율적 노력을 통해 성장한다고 하는 견해를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지만 오상무의 자발성 개념은 ‘스스로’라는 말이 지니는 또다른 측면, 즉 자신의 본래적 성향(즉 본성)이 외부의 힘이 아닌 자기 내면의 힘에 의해 발현된다고 하는 측면도 포함하고 있다. 당군毅(唐君毅)의 말을 빌면 사연(使然), 즉 누군가가 시켜서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원리나 힘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sup>32)</sup> 이 또한 자발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노자』의 ‘자연’ 개념은 이케다의 입장과는 또다른 의미의 자발성(spontaneity)의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노자』 제51장에 나타나는 ‘자연’ 개념은 이러한 의미의 자발성 개념을 잘 보여준다:

도(道)는 그것들을 낳고 덕(德)은 그것들을 길러주는데, [도와 덕은] 그것들에게 물체로서 형상을 부여하고 그것들을 구체적 기물로서 완성시킨다. 그런 까닭에 만물들 가운데 도를 높이고 덕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없으니, 도와 덕의 존귀함은 누가 그들에게 작위를 부여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늘 스스로 그러한 것이다.<sup>33)</sup>

31) 오상무, 「『老子』의 自然 개념 論考」, 6쪽.

32) 唐君毅, 「論老子言法道之四層面」, 『中國文化研究所學報』 제1권(香港中文大學 中國文化研究所 1968), 194쪽(이강수, 『道家思想의 研究』, 209쪽에서 재인용).

33) 『노자』 제51장: “道生之, 德畜之, 物形之, 勢(器)成之. 是以萬物莫不尊道而貴德. 道之尊, 德之貴, 夫莫之命(爵)而常自然.” 이 문장에서 앞의 네 ‘지(之)’자는 만물을 가리키는 데, ‘물형지(物形之)’의 경우 이석명이 지적한 것처럼 의미상 ‘물형물(物形物)’이 되어 번역이 매끄럽지 않다. 여기에서는 이케다의 해석을 따라 ‘물형지(物形之)’의 주어를 도와 덕으로 보고, 도와 덕이 그것들 즉 만물에게 물체로서의 형태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석명, 『백서 노자』, 138쪽; 이케다 토모히사(池田知久), 『老子』, 50쪽 참조. ‘세성지(勢成之)’는 만물이 처한 구체적 환경(environment)이나 상황(circumstances)이 개

이 문장에서 ‘스스로 그러함(自然)’은 바로 앞에 나오는 도와 덕의 존귀함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sup>34)</sup> 즉 도와 덕은 만물을 낳고 기르는 작용을 하는데, 도와 덕이 존귀한 까닭은 천자나 제후와 같은 유력자가 누군가에게 작위를 부여하여 그의 명예를 높여주듯이 도와 덕을 넘어서는 상위의 존재가 있어 도와 덕에게 작위를 부여해서 그것들을 존귀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만물을 낳고 기르는 도와 덕의 작용에 힘입어 살아가는 만물들이 자신들을 낳아주고 길러준 도와 덕을 존귀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라는 뜻이다. 즉 도와 덕의 존귀함은 도와 덕이 지닌 낳음과 기림이라는 공능 자체가 만물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유발하는 효과이며, 그런 점에서 도와 덕의 존귀함은 누가 시킨 것(使然)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함(自然) 것, 즉 자기 내부의 원리나 힘에 의해 발현 또는 초래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자발성(自然)은 도와 덕이 지닌 낳음과 기림이라는 공능이 가지는 속성이며, 만물을 낳고 기를 수 있는 능력은 도와 덕이 본래부터 지닌, 즉 본래부터 그러함(自然) 특성이라는 점에서 도와 덕의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노자』 제51장의 ‘자연’이 도와 덕의 본성이 자발적이라는 점을 기술하는 술어라면, 제64장의 ‘자연’은 만물의 자발성을 가리키는 명사이며 그 뒤에는 만물의 본성이라는 개념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별 사물들을 완성시킨다는 뜻으로도 풀 수 있으나, 백서본에 ‘세(勢)’가 ‘기(器)’로 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위와 같이 번역해 보았다. ‘세(勢)’를 ‘환경’으로 보는 것은 장석창(蔣錫昌)의 『노자교고(老子校詁)』(上海: 商務印書館, 1937)에 실려 있는 견해인데 도널드 먼로(Donald Munro), *The Concept of Man in Early Chin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69), p. 230에 인용된 내용을 참고하였으며, ‘명(命)’은 백서본에 따라 ‘작위를 부여하다(爵)’로 해석하였다.

- 34) 오상무에 의하면 왕박(王博)은 “夫莫之命(爵)而常自然”을 ‘도와 덕(夫)이 만물(之)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지(命) 않고 항상 [만물의] ‘자연’[에 맡긴다]’라고 해석하여 “自然”의 주어를 도와 덕의 존귀함이 아니라 만물로 보는데, 이러한 견해는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맡긴다(任)’라는 동사를 추가한다는 점, 그리고 백서본과 돈황본을 비롯하여 여러 고본 『노자』에서 ‘명(命)’이 ‘작(爵)’으로 되어 있는 점에 근거하여 반박 가능하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오상무, 『『老子』의 自然 개념 論考』, 13쪽 참조.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하는 자는 실패하고, 잡으려는 자는 그것을 놓친다. 그러므로 성인은 힘이 없기에 실패함이 없고, 잡으려 힘이 없기에 놓치는 일도 없다. 백성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거의 다 이루어졌을 때 일을 그르치니, 끝까지 삼가기를 처음과 같이 해야 실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인은 욕구하지 않기를 욕구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며, 배우지 않기를 배워서 못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만물의 자발성을 도울 뿐 감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sup>35)</sup>

원문에서 “자연(自然)”은 문법적으로 ‘돕는다(輔)’라는 동사가 받는 목적어이므로 명사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제51장의 ‘자연(自然)’처럼 무언가에 내재된 원리나 힘이 자발적이라는 점을 묘사하기 위한 슬어가 아니라 그러한 원리나 힘을 가진 특정 존재의 자발성을 명사적으로 개념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만물지자연(萬物之自然)”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 여기서의 자발성(自然)은 만물의 자발성, 즉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이나 원리에 의해 운동하거나 성장하는 만물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시에 이러한 만물의 자발성은 그러한 자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물 내부의 어떤 원리나 힘의 존재를 상정케 하며, 그러한 원리나 힘은 만물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본래부터 그러한(自然) 것일 터이기에 만물의 ‘자연’은 만물의 자발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만물의 본래 그러한 성질, 즉 본성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고대 중국철학에서 본성을 의미하는 ‘성(性)’자는 『노자』에 등장하지 않는다. 하지만 『노자』에는 자연(Nature)의 일부인 다양한 사물들의 본성에 대한 관심과 그에 대한 앎을 도(道)에 대한 깨달음으로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보인다. 예컨대 제8장에서는 “오뜸가는 선(善)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기를 좋아하지만 [그들과] 다투지 않으며, 못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머물기 때문에 도에 가까운 것이다”라고 하는데,<sup>36)</sup> 여기에서는 분명히 물의 정화능력과 부드러움, 아래로 흐르는 성질과 동식물

35) 『노자』 제64장: “爲者敗之, 執者失之. 是以聖人無爲, 故無敗, 無執, 故無失. 民之從事, 常於幾成而敗之, 慎終如始, 則無敗事. 是以聖人欲不欲, 不貴難得之貨, 學不學, 復衆人之所過. 以輔萬物之自然, 而不敢爲.”

36) 『노자』 제8장: “上善若水. 水善利萬物而不爭, 處衆人之所惡, 故幾於道.”

의 생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 등을 물의 주요한 특질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성질을 가진 물이 도(道)에 가깝다고 한 것으로 보아 『노자』의 저자는 물의 본성뿐만 아니라 도의 본성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 제55장에서는 두터운 덕을 지닌 사람을 갓난아이(赤子)에 비유하면서 갓난아이는 뼈와 힘줄이 약해도 물건을 꼭 쥌 수 있고 남녀의 결합을 몰라도 성기가 뻗뻗이 서 있으며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메이지 않는데, 이는 갓난아이가 지극한 정기(精)를 지니고 있으며 지극한 조화(和)를 자연적으로 터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sup>37)</sup> 이는 갓난아이가 부드러움과 조화로우음을 본성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이를 본받아 도(道)에 합치되도록 해야 한다는 사고라고 볼 수 있다.

## V. 『노자』에서 ‘자연’은 최고의 도덕적 표준인가?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노자』에 나타나는 ‘자연’ 개념이 특정한 원리나 힘을 본성으로 지닌 존재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내부의 원리나 힘에 의해 활동하며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는 자발성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존재의 본성, 즉 그 존재의 본래부터 그러한 성질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 앞서 살펴본 것처럼 『노자』 제64장에서 성인은 만물의 자발성을 도울 뿐 감히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는 성인이 만물을 주도적으로 관리하거나 이끄는 대신 만물이 지닌 자발적 본성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행위만으로도 도가적 이상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것으로, 분명히 만물의 자발성 혹은 자발적 본성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25장에서는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道)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자연’ 즉 만물

37) 『노자』 제55장: “含德之厚，比於赤子...骨弱筋柔而握固，未知牝牡之合而全作，精之至也。終日號而不嗶，和之至也。”

의 자발성을 인간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 그리고 천지 생성의 근원인 도조차도 본받아야 할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자연’이 명실상부하게 우주만물 그리고 그 시원인 도조차도 따라야 할 최고의 표준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제25장의 “인법지(人法地), 지법천(地法天), 천법도(天法道), 도법자연(道法自然)”이라는 구절, 특히 “도법자연(道法自然)”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예부터 해석이 분분하다. 문제는 이 구절에서 사람, 땅, 그리고 하늘은 각각 땅, 하늘, 도라고 하는 자기보다 상위의 존재를 본받아서 자신의 위대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도는 노자의 사상체계 속에서 최상의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도가 다른 무언가를 본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의식해서인지 “도법자연(道法自然)”이라는 말에 대해 하상공(河上公)은 “도성자연(道性自然), 무소법야(無所法也)”라는 주석을 달았는데, 이에 따르면 도는 ‘자연’을 자신의 본성으로 삼기에 도가 ‘자연’을 본받는다라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본받는 것이 되므로 사실상 도는 아무 것도 본받을 것이 없다는 뜻이 된다.<sup>38)</sup> 이렇게 보면 도가 노자의 사상체계 안에서 최고의 존재라고 하는 점에서 기인하는 해석상의 난점은 해소되지만, ‘A法B’라는 구조 속에서 B가 A보다 상위의 존재로서 A가 따라야 할 모범을 제시한다는 패턴이 ‘인법지(人法地)’, ‘지법천(地法天)’, ‘천법도(天法道)’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도법자연(道法自然)’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노자가 의도한 것이 사람, 땅, 하늘의 경우와 달리 도는 자기 자신을 본받는다, 혹은 도의 본성인 ‘자연’이 노자가 생각한 최고의 이상적 경지라고 하는 점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본다면 이러한 문제도 큰 무리 없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상무는 도가 만물의 근원 혹은 양육자로서 모든 존재 가운데 최고의 지위를 누리는 존재라 하더라도 자신이 낳고 기르는 만물의 본성을 자

38) 王卡 點校,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北京: 中華書局, 1993), 103쪽. 이종성은 “도법자연(道法自然)”에 대한 역대 주석가들의 견해를 1) ‘자연’이 도(道)와는 별개의 존재로서 도가 따라야 할 모범을 제시한다는 입장과 2) ‘자연’은 단순히 도의 본성을 형용한 말이라는 입장으로 나누어 소개한 후 후자의 해석을 지지한다. 이종성, 「노자의 자연관」, 227-229쪽 참조.

신이 따라야 할 모델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노자』에서 ‘자연’이 만물이나 백성의 상태를 기술하는 말로는 쓰이지만 도의 속성으로 사용되는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근거하여 “도법자연(道法自然)”에서 “자연(自然)”의 주어를 만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예컨대 은행나무가 봄에 싹을 틔우고 가을에 잎을 노랗게 물들이는 것은 은행나무의 본성인데, 도는 은행나무가 그러한 자신의 본성을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온도와 습도, 양분을 제공해주며, 그러한 도의 활동은 은행나무의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방식으로 수행된다는 점에서 “도법자연(道法自然)”, 즉 도가 은행나무의 본성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39)</sup> 이러한 해석의 장점은 위에서 언급한 ‘A法B’의 구조 속에서 ‘법(法)’자가 지니는 의미를 “도법자연(道法自然)”이라는 말에서도 비교적 충실하게 살려낸다는 점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자연’이 일차적으로 만물의 자발성을 의미하고 도가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것이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중요한 의미라 하더라도, 만물은 결국 도에서 나왔으니 만물의 자발성 또한 도의 활동에 의거한 것이리라는 점, 그리고 만물의 자발성을 거스르지 않는 도의 작용 또한 도의 본성이 외부의 영향 없이 자발적으로 드러난 결과일 것이라는 점에서 자발성(自然)은 만물뿐만 아니라 도의 속성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노자』 제25장과 6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만물의 자발적 본성은 인간이 따라야 할 최고의 표준으로서 순전히 긍정적 가치만을 지닌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사실 문제는 만물 그 자체가 아니라 만물의 일부인 인간이다. 『노자』 제23장에서는 “[군주가] 말을 아끼는 것이 ‘자연’[에 부합한다]. 그러므로 사나운 바람은 아침을 다하지 못하며, 소나기는 하루를 다하지 못한다”고 하여<sup>40)</sup> 자연현상 가운데에도 노자철학의 최고의 이상인 ‘자연’에 어긋나는 것이 있음을 암시하는 듯하지만, 이는 사실상 백성의 자

39) 오상무, 「『老子』의 自然 개념 論考」, 16-18쪽.

40) 『노자』 제23장: “希言自然. 故飄風不終朝, 驟雨不終日.” “希言自然”이라는 문장의 구조와 그 철학적 함축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오상무, 「『老子』의 自然 개념 論考」, 9-12쪽을 참조.

발적 본성에 모든 것을 맡겨두지 못하고 강제적인 법령과 형벌로 그들을 다스리고자 하는 군주의 유위적 태도에 대한 비유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노자는 “자연(天)의 도는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지 않을까? 높은 것은 누르고 낮은 것은 들어주며, 남음이 있으면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더해준다. 자연의 도는 남음이 있는 것으로부터 덜어내어 부족한 것을 더해주지만,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다. 부족한 자에게서 덜어내어 남음이 있는 자를 봉양한다”고 하여<sup>41)</sup> 인간과 달리 자연(天) 일반의 운행원리를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구절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인간은 자연의 운행방식에 반하여 빈익빈 부익부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조장하는 경향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한 인간을 일부로 하는 만물의 자발적 본성이 도(道)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존재가 본받고 따라야 할 최고의 표준이며 그 실현을 돕는 것만으로 천하가 이상적 경지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노자』에서 다양하게 언급되는 인간의 부정적 경향성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다섯 가지 감각의 욕망이다. 『노자』 제12장을 보자:

다섯 가지 색[으로 만든 찬란한 무늬]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다섯 가지 소리[로 된 현란한 음악]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하며, 다섯 가지 맛[이 조화된 훌륭한 음식]은 사람의 미각을 무디게 한다. [또] 말을 달려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들고,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의 행실을 망가뜨린다.<sup>42)</sup>

다섯 가지 감각은 인간이 자연(天)으로부터 타고나는 것이며 인간 속에 내재된 자연이라고 할 수 있다. 위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오관(五官)과 연결된 욕망은 그 본성상 각각의 감각에 대응하는 특정한 대상을 향해 치닫게 되어있는데, 이러한 욕망은 외부의 영향 없이 그 내부의 원리 혹은 힘에

41) 『노자』 제77장: “天之道，其猶張弓與？高者抑之，下者舉之；有餘者損之，不足者補之。天之道，損有餘而補不足。人之道則不然，損不足以奉有餘。”

42) 『노자』 제12장: “五色令人目盲，五音令人耳聾，五味令人口爽，馳騁畋獵令人心發狂，難得之貨令人行妨。”

의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라는 점에서 자발성(自然)을 띤다고 할 수 있다.<sup>43)</sup> 그런데 여기서 아름다운 무늬나 현란한 음악, 잘 조미된 음식과 같은 외부의 대상(外物)들이 욕망을 자극할 때 그러한 대상들의 작용을 욕망에 대한 외부의 영향이라고 오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노자』의 ‘자연’ 개념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논의한 외부의 영향이란 만물의 자발적 본성이 잘 실현되지 못하도록 이를 거스르고 막는 인위적 강제를 가리키는 것이지, 욕망이 자신의 자연스러운 본성상 반드시 추구하게 되어 있는 외부의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인이 현명한 이를 높이지 않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서로 다투지 않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질하지 않게 하며, 욕심낼 만한 물건을 내보이지 않음으로써 백성들의 마음이 어지럽지 않게 하는<sup>44)</sup> 이유는 바로 백성들이 본성상 높은 사회적 지위와 귀한 물건을 탐내게 되어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노자』에 의하면 인간이 이렇게 욕구의 대상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이유는 부분적으로 그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 잘못된 사고 때문이다. 인간은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명히 가르친 후 전자를 추구하고 후자를 배척하려는 분별적 성향을 지니는데,<sup>45)</sup> 이러한 경향성은 위에서 인용한 『노자』 제12장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간의 감각을 못쓰게 만들고 정신을 발광케 하며 행실을 추락시키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또 『노자』 제55장에서는 “마음이 기(氣)를 부리는 것을 강성하다고 한다. 무엇이든 [지나치게] 장대해지면 늪어버리게 되니, 그것을 가리켜 도(道)에 맞지 않다고 한다. 도에 맞지 않으면 일찍 죽게 된다”<sup>46)</sup>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인간 마음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고작용을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욕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인간 마음의 잘못된 사려작용도 그것이 바람직하지

43) 앞에서 인용한 김형효가 인간 욕망의 일부인 소유론적 욕심이 자발성을 띤다고 말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44) 『노자』 제3장: “不尙賢, 使民不爭; 不貴難得之貨, 使民不爲盜; 不見可欲, 使民心不亂.”

45) 『노자』 제2장: “天下皆知美之爲美, 斯惡已; 皆知善之爲善, 斯不善已.”

46) 『노자』 제55장: “心使氣曰強. 物壯則老, 謂之之道. 不道早已.”



못하다는 점에 근거하여 ‘자연’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오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노자』의 ‘자연’ 개념은 만물이나 인간의 자발적 본성이 외부의 방해 없이 잘 실현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며, 인간 마음의 잘못된 사려작용도 그것이 최초의 시점에 외부의 영향 없이 자발적으로 일어난 것인 한 노자 ‘자연’ 개념의 범위에서 배제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 VI. 맺음말

이 글에서 우리는 『노자』에 나타난 ‘자연’ 개념의 의미를 자발성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오늘날 우리말의 ‘자연스럽다’의 어원이 되는 『노자』의 ‘자연’은 ‘스스로’를 뜻하는 부사인 ‘자(自)’에 ‘그러하다’라는 뜻의 ‘연(然)’자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말인데, 특히 ‘자(自)’는 일종의 재귀대명사적 부사로서 그 뒤에 따라나오는 술어가 받는 주어의 상태나 행동이 주어 자신에 의해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낸다. ‘자(自)’자의 이러한 용법에 주목하여 이케다 토모히사는 『노자』의 ‘자연’ 개념을 자신의 삶을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영위해 가려는 만물이나 백성의 자발성으로 정의하는데, 이는 보다 정확히 말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영위해 나가려는 의식적·주체적 노력으로서 무위보다는 작위에 가까운 개념이다. 하지만 필자가 위에서 논증한 바와 같이 이러한 의미의 자발성(voluntariness) 개념은 『노자』 원문의 해석과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많으며, 개념적으로 표리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연’과 무위의 개념을 서로 모순되는 것으로 보는 개념적 오류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노자』 ‘자연’ 개념의 ‘자(自)’자에는 ‘스스로’라는 의미 외에 ‘본래’ 혹은 ‘애초에’라는 의미도 있는데, 이에 따르면 『노자』의 ‘자연’은 무언가가 본래부터 가지는 성격 혹은 속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연(自然)’이 ‘스스로 그러함’을 의미할 때에는 이케다가 주장한 의미의 자발성(voluntariness)

개념이 아닌 또 다른 의미, 즉 자신이 지닌 본래적 성향이 외부의 영향이 아닌 자기 내면의 힘이나 원리에 의해 발현된다고 하는 의미의 자발성(spontaneity) 개념을 함축한다. 이러한 의미의 자발성 개념은 『노자』 제51장과 64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제64장의 ‘만물지자연(萬物之自然)’이라는 말은 만물의 자발성, 즉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이나 원리에 의해 운동하거나 생각하는 만물의 속성을 가리킨다. 또 이러한 만물의 자발성은 그러한 자발성을 특징으로 하는 만물 내부의 어떤 원리나 힘의 존재를 상정케 하며, 그러한 원리나 힘은 만물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것 혹은 본래부터 그러한(自然) 것이라는 점에서 만물의 본래 그러한 성질, 즉 본성의 개념을 함축한다. 이러한 사고는 물, 영아, 계곡 등 다양한 자연물들의 본성에 대한 앎을 도(道)에 대한 깨달음으로 연결시키려는 『노자』의 태도에서도 확인된다.

『노자』 제64장에서는 이러한 만물의 자발적 본성이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무위(無為)의 행위를 가장 이상적인 행위 형태로 보며, 제25장에서는 도의 속성을 타고 태어난 만물의 자발적 본성(自然)을 인간을 포함한 우주의 모든 존재가 본받아야 할 최고의 도덕적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다른 존재들과 달리 인간의 경우 자발적 본성은 그 개념적 정의상 인간이 자연적으로 타고난 두 가지 부정적 경향성, 즉 욕망의 대상을 과도하게 추구하는 성향과 세계를 선악, 미추 등의 대립항으로 나누고 자신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분별적 성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자가 제시하는 최고의 도덕적 이상으로서의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난점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은 노자가 말하는 인간의 자발적 본성을 긍정적 측면으로만 한정하여 목마르면 물 마시고 배고르면 밥을 먹는 단순한 욕구만이 인간의 참된 욕구이며, 세계에 대해 분별적 사고를 하고 기이한 물건이나 제도를 만들어 내는 지성의 활동은 인간의 본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노자』의 ‘자연’ 개념이 외부의 영향 없이 자기 내부의 원리나 힘에 의해 운동하는 존재의 자발적 속성을 의미하는 한, 그리고 기이한 물건을 만들어 내고 세계를 분별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도(道)를 무너뜨리기 시작한 최초의 인간들이

외부의 영향이 아닌 자기 내부의 동인(動因)에 의해 그렇게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이는 노자의 철학체계 안에서 존재의 자발적 본성을 의미하는 ‘자연’ 개념과는 별도의 목적론적 가치—예컨대 목숨의 보전이나 자연(天)적 질서와의 조화(和)와 같은—가 요구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지면의 한계가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들, 그리고 이 글에서 제기한 『노자』 ‘자연’ 개념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관점에 대한 다양한 반론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의 자리에서 다시 논의하고자 한다.

투 고 일: 2016. 12. 14  
심사완료일: 2017. 01. 20  
게재확정일: 2017. 01. 20

김명석  
연세대학교 철학과

## 참고문헌

- 高明. 1996. 『帛書老子校注』. 北京: 中華書局.
- 김용옥. 2013. 『노자와 21세기』(전3권), 제2판. 서울: 통나무.
- 김형효. 2004. 『사유하는 도덕경』. 서울: 소나무.
- 段玉裁. 1988. 『說文解字注』.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 唐君毅. 1968. 「論老子言法道之四層面」. 『中國文化研究所學報』 제1권(香港中文大學出版部): 171-207.
- 廖名春. 2003. 『郭店楚簡老子校釋』. 北京: 清華大學出版社.
- 樓宇烈. 1992. 『王弼集校釋』. 臺北: 華正書局.
- 박원재. 2004. 「“성인”과 “백성”—노자의 수양론의 두 측면」. 『중국철학』 제12권(중국철학회): 5-31.
- 오상무. 2008. 「『老子』의 自然 개념 論考」. 『철학연구』 제82집(철학연구회): 1-20.
- 王卡. 1993. 『老子道德經河上公章句』. 北京: 中華書局.
- 원정근. 1997. 『도가철학의 사유방식』. 서울: 법인문화사.
- 이강수 역. 2007. 『노자』. 서울: 도서출판 길.
- 이강수. 1995. 『道家思想의 研究』 제4판.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출판부.
- 이석명. 2006. 『백서 노자』 제2판. 고양: 청계출판사.
- 이승률. 2007. 「研究史를 통해서 본 中國 古代의 ‘自然’ 思想과 問題點 考察」. 『동양철학연구』 제49집(동양철학연구회): 45-79.
- \_\_\_\_\_. 2008. 「郭店楚簡『老子』의 ‘自然’ 思想과 그 展開」. 『동양철학연구』 제53집(동양철학연구회): 207-244.
- 이종성. 2002. 「노자의 자연관」. 『동서철학연구』 제24호(한국동서철학회): 217-240.
- 蔣錫昌. 1937. 『老子校詁』. 上海: 商務印書館.
- 정세근. 2001. 『제도와 본성』. 서울: 철학과 현실사.
- 池田知久. 2006. 『老子』. 東京: 東方書店.

- \_\_\_\_\_. 2000. 『老莊思想』. 東京: 放送大學教育振興會.
- 陳鼓應. 1991. 『老莊新論』. 香港: 中華書局.
- 최재목. 2006. 『노자』. 서울: 을유문화사.
- 최진석. 2001. 『노자의 목소리로 듣는 도덕경』. 서울: 소나무.
- \_\_\_\_\_. 2014.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고양: 소나무.
- 荊門市博物館. 1998. 『郭店楚墓竹簡』. 北京: 文物出版社.
- Ivanhoe, Philip J. 2002. *The Daodejing of Laozi*. New York: Seven Bridges Press.
- \_\_\_\_\_. 2010. “The Values of Spontaneity.” In *Taking Confucian Ethics Seriously*, edited by Kam-por Yu, Julia Tao, and Philip J. Ivanho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Lau, D. C. 1963. *Tao Te Ching*. London: Penguin Books.
- Liu, Xiaogan. 1998. “Naturalness (Tzu-jan), The Core Value in Taoism: Its Ancient Meaning and Its Significance Today.” In *Lao-tzu and the Tao-te-ching*, edited by Livia Kohn and Michael LaFargue. Albany, 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 Munro, Donald. 1969. *The Concept of Man in Early Chin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van Houten, Richard Lee. 1981. *The Concept of Nature (tzu jan) in Kuo Hsiang and its Antecedents*. Ph. D. Diss.,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 ABSTRACT

On the Concept of *Ziran* in *Laozi* as Spontaneity

Kim, Myeong-Seok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ziran* 自然 as a kind of spontaneity and argue that *ziran*, suggested by the author of the *Laozi* as the highest ethical ideal, cannot perform its purported role as an ethical ideal due to some of its conceptual limitations. In my view, the best interpretation of *ziran* in the context of the *Laozi* is to see it not only as referring to a certain set of tendencies that myriad things or humans originally have, but also as meaning a kind of spontaneity that is manifested through the spontaneous movements or developments of things. In other words, the movements or developments of certain things are spontaneous when they are caused not by outside influences but by the inherent power or principles of those things, and it is this sense of spontaneity that I think is partly captured by the term *ziran*. The author of the *Laozi* considers *wuwei* 無為 (non-action) as the ideal type of action that best facilitates the realization of the original nature of myriad things including humans, and proposes *ziran* or spontaneity of the original nature of things as the highest ideal to be emulated by every creature in the world. In the case of humans, though, their original nature includes by definition both good and bad tendencies that are equally spontaneous, and consequently cannot perform the role of ethical ideal that the author of the *Laozi* probably intended it to perform.

**Subject Class:** Chinese Philosophy, Daoist Philosophy

**Keywords:** *Laozi*, Nature, Non-action, Spontaneity, Voluntariness, *Wuwei*, *Ziran*